

사진으로 보는

# 연동교회 110년사

사진과 이야기가 있는  
역사의 현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동교회

## 발 간 사



담임목사 이 성 희

하나님께서 110년 전 암울했던 민족의 역사에 새 빛을 밝히기 위해 연못골에 교회를 세우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110년의 긴 시간 속에서 연못골은 연동교회의 동지였습니다. 이 연못골 동지는 알을 품고 알을 까고 새끼를 훈련하고 자라서 내 보내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동지가 된 지 어언 110년이 흘렀습니다. 몹쓸 비바람에 동지가 퇴락하기도 했고 다시 지어야 했으며 거센 화마로 인해 동지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못골은 더 견고한 동지를 틀어 찬란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교회는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자리한 사회를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회를 사랑하고 사회를 섬기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못골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못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정성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십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 해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험은 110년 동안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세상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110년을 이어온 모든 연동의 가족이 연동교회입니다. 거름은 한 곳에 모아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름은 밭에 골고루 뿌리기 위한 것입니다. 거름이 골고루 뿌려지게 될 때에 땅이 비옥하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작은 교회가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씁니다. 지난날의 역사는 지난날의 인물들이 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역사는 우리가 씁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역사가 미래인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진실이 숨김없이 교회의 역사로 새겨질 것입니다.

과거는 죽었고 미래는 살아있습니다. 과거는 다시 살지 못하는 사건들의 묘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소중한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비록 실패였고 오점이었다 하더라도 과거는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과거는 미래에 주는 교훈을 알뜰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하며 아직 거룩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도록 부르심 받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도 이미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이중성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역사는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소중히 간직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 전혀 새로운 완전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를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건들이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모든 회전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110년의 역사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펴내는 110주년 사진집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행사들을 열거하며 업적들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개입하셨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록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110주년 역사는 사도행전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인류의 전 시간과 공간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 볼 때 우리의 역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먼지같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연동교회 110년의 역사를 써온 분들에게는 크고 소중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진집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 110년사'를 발간합니다. 100주년에는 '100년사'를 발간했지만 110주년에는 '사진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120주년을 맞이하는 때 다시 '120년사'를 발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사진집을 위해 저술 편집하시고 감수 및 교열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110년의 역사를 한땀한땀 수놓는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연동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진집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지체된 우리의 수고가 담긴 '연동행전'이기를 바랍니다.

## 축 사



원로목사 김형태

연못골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된 지 110주년을 맞아 사진집을 출간하게 된 것을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10년의 역사를 사진을 통해 본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거울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진집에 설명을 곁들인 시도는 연동교회 110년의 역사를 알기 쉽게 간추린 사료집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좋은 기념 사진집을 편집한 고춘섭 장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집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연동교회의 110년 전통을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동교회의 소중한 유산은 복음의 토착화를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제1대 위임목사인 게일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연동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새롭고 건강한 토착문화를 창달케 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나 미국 등 서양의 문화를 한국에 이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서의 복음으로 한국문화 속에 토착화해서 한국의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학작품을 번역, 또는 창작 출판하고 한국 찬송가 제작의 시도와 성서번역의 출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설립했으며 기독교 청소년운동과 문서보급사업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목회에 동사사역의 매우 훌륭한 전통을 세운 것입니다. 이명혁 조사는 게일 목사의 지도를 받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후 게일 목사와 동사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는 교단의 결의에 따라 이명혁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외국인 선교사인 게일 목사는 이명혁 목사의 동사목사로 지위를 바꾸게 됐으나, 여전히 이명혁 목사는 게일 목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 설교를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 한달 간격으로 두 분이 모두 은퇴하셔서 게일 목사는 본국으로 귀국하시고 이명혁 목사는 연동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동반자의 사역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연동교회의 미래를 향한 진보적이며 창의적인 개방과 개혁의 영적훈련을 받게 됩니다. 급변하는 사회문화 속에 교회의 목회양식과 지도력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는 세속적인 사업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계인류의 구원을 돕는 영적변화의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방과 개혁의 진보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서가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 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본떠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수단은 수량적인 세력확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물과 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이나 권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영적 힘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힘이기도 합니다. 연동교회의 자라나는 미래인들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건훈련은 사회에서 하는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행사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는 교인 개인이 사회에서, 또는 교계에서 배워 좋다고 주장하는 활동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기본활동이며 영적변화를 추구하는 성서적인 행사인지 분별해서 선택하고 책임있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 기념사



### 110주년기념사업위원장 우낙신

연동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못골에 세워진 지도 어언 1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동교회 11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연동교회를 통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110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로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 110년사'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연동교회를 죄악과 어둠의 이 나라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분의 압제와 동족상잔의 6.25를 당하면서도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진정한 삶과 참된 자유를 향한 신앙적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손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연동교회 110년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념하고 사진으로 나타내어 하나님께 복종과 신앙의 새로운 약속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연동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전통과 역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120주년을 향해서 힘찬 출발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밝은 내일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합니다.

연동교회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사진집을 편찬하면서 부족한 사진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역사적 기록물을 펴내는 일에 쉬지 않고 기도로 감싸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회와 제직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집필과 편찬하는 데 수고하신 고춘섭 장로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일로서 이를 통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 110주년기념사업계획위원장 강신우

연동교회 110주년의 소명은 영문 밖으로 나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을 명령합니다. 교회창립 100주년을 '10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그리고 110주년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로 주제를 정한 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10주년의 기념사업도 영문 밖 세상과 이웃을 위한 프로젝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연동복지문화관은 지역사회의 소외자와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 섬김과 사랑의 실천장이 될 것입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공간은 문화선교의 사명을 다하며 이웃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양평의 작은형제의집 건축은 장애로 불편한 형제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며 강화수양관 교육동 건립도 영성훈련의 수련기지로 개방하기 위함입니다.

110주년 기념사업은 이같이 철저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0년의 연동교회로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1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모든 연동의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봉헌과 헌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교회창립 110주년 기념 출판물인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 110년사'의 출간을 자축하고 감사하며 110주년을 기념하는 최상의 금자탑이 될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하는 바입니다.

# 목 차

발간사.....담임목사 이 성 희...2  
 축사.....원로목사 김 형 태...4  
 기념사.....110주년기념사업위원장 우 낙 신...5  
                   110주년기념사업계획위원장 강 신 우...5

## 제1편 요람기 / 9

### 초대 다섯 선교사 시대(1894-1900)

1. 한반도에 복음의 은총이.....10
2. 다섯 선교사.....12

16. 조양유치원.....30

## 제2편 성장기 / 13

### 계 일 목사 시대(1900~1927) 이명혁 목사 시대(1919~1927)

1. 계일(기일) 목사.....14
2. 초기 한옥 예배처소.....16
3. 연동소학교와 경신·정신.....17
4. 교회 개척 및 설립.....18
5. 소아회.....19
6. 이준 열사와 이상재 피택장로.....20
7. 이눌서 목사와 밀의두 목사.....21
8. 고찬익 장로.....22
9. 네번째 교회당.....23
10. 태극기와 교회기.....24
11. 이명혁 목사.....25
12. 3.1 독립선언서.....26
13. 여성 지도자들.....27
14. 청년면려회.....28
15. 권서부인과 모리부인.....29

## 제3편 발전기 / 31

### 함태영 목사 시대(1929-1941)

1. 함태영 목사.....32
2. 주일학교.....34
3. 주일학교 교사.....35
4. 찬양대.....36
5. 교회창립 40주년.....37
6. 성탄절 주일학교.....38
7. 여전도회전국연합회.....39
8. 역대 후보.....40

## 제4편 수난기 / 41

### 전필순 목사 시대(1941-1961)

1. 전필순 목사.....42
2. 일제말엽 교회탄압.....44

3. 조형욱 전도부인	45
4. 찬양대	46
5. 주일학교 대외활동	48
6. 주일학교 사진 모음	50
7. 다섯번째 교회당	51
8. 마루바닥 예배석	52
9. 제직회와 여전도회	53
10. 하마련 선교사	54
11. 교회창립 60주년	55
12. 청년면려회	56
13. 하기아동성경학교	57
14. 서울노회여전도회연합회	58
15. 강대상 및 하몬드 오르간	59
16. 제44회 예장총회의 분열	60
17. 여전도회 야외예배	62
18. 서울여자대학	63
19. 옛 당회록 등 문화유산	64

### 제5편 재건기 / 65

#### 백리언 목사 시대(1962-1966)

1. 백리언 목사	66
2. 청년면려회	68
3. 주일학교	69
4. 성탄축하	70
5. 장로 장립(1)	71
6. 사경회와 장로 장립(2)	72
7. 교회창립 70주년	73
8. 여전도회 바자회	74

### 제6편 확장기 / 75

#### 김형태 목사 시대(1967-1989)

1. 김형태 목사	76
2. 성탄절 음악예배	78

3. 중·고등부 성가대	79
4. 장로 장립(1)	80
5. 수양관	81
6. 화마가 휩쓴 교회당	82
7. 여전도회	83
8. 해외선교	84
9. 교회창립 80주년	86
10. 체육대회 겸 친목야유회	88
11. 교육사회관	89
12. 장로 장립(2)	90
13. 헌혈운동	91
14. 주일학교(1)	92
15. 주일학교(2)	93
16. 여섯번째 교회당	94
17. 부설 복지기관	95
18. 게일문화상·송암봉사상	96
19. 남선교회	97
20. 교회모지	98
21. 특별설교	99
22. 성전에 꽂은 꽃	100
23. 승리의 십자탑	101
24. 남선교회 특별활동	102
25. 청년선교회	103
26. 장로 장립(3)	104
27. 부설 교육기관	105
28. 부활절 찬양예배	106
29. 외국인 사회관 체류	107
30. 첫번째 파이프 오르간	108
31. 산업부	109
32. 교회창립 90주년	110
33. 제직연수회	112
34. 연동사료실	113
35. 전도위원회·남선교회 지원교회	114
36. 장로 장립(4)	115
37. 주일학교(3)	116
38. 나라를 위한 기도회	117
39. 성가대	118
40. 남선교회서울노회연합회	119
41. 캐나다 한국선교 100주년	120
42. 연동소식·연못골	121
43. 교회안내·교회요람·연동요람	122



### 제7편 안정기 / 123

#### 이성희 목사 시대(1990-현재)

1. 이성희 목사	124
2. 제직 연수회 · 간친회	126
3. 장학금	127
4. 전도부 · 여전도회 지원교회	128
5. 장로 장립(1)	129
6. 성전 꽃꽂이	130
7. 남선교회	131
8. 전도학교	132
9. 1992 연동음악회	133
10. 우간다 / 김정운 선교사	134
11. 연동의숙	136
12. 네팔 / 정현숙 선교사	137
13. 연동복지원	138
14. 창락 · 누상 어린이집	139
15. 절제와 구제	140
16. 주간 성경교실	141
17. 구역회	142
18. 향존직 교육	143
19. 교회창립 100주년	144
20. 연동역사관	146
21. 필리핀 단기선교	147
22. 도미니카 / 김종선 선교사	148
23. 체육활동	149
24.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150
25. 연동신용협동조합	151
26. 여전도회찬양대	152
27. 사회부 활동	153
28. 가정사역	154
29. 청년선교회	155
30. 청소년주일학교	156
31. 연동어린이집	158
32. 사랑의 기금	159
33. 태백연동교회	160
34. 부용찬양대	161
35. 성탄절	162
36. 승리의 십자탑	163
37. 장로 장립(2)	164
38. 연못골찬양대	165

39. 혼인 재언약	166
40. 전교인 야외예배	167
41. 여전도회	168
42. 신앙사경회	169
43. 게일찬양대	170
44. 태신자 운동	171
45. 강화수양관 봉헌	172
46. 성경퀴즈대회	173
47. 연동찬양선교단	174
48. 연동원로관	175
49. 종로5가역	176
50. 사할린연동교회	177
51. 연동청소년학교	178
52. 영성훈련 '아가피아'	179
53. 권사 안수	180
54. 연동유치원	181
55. 괴산군 전도 봉사	182
56. 교회당 정문	183
57. 호스피스 천사들	184
58. 장로 장립(3)	185
59. 하나님 찬양	186
60. 연동작은형제의집	187
61. 연동 · 승동 연합예배	188
62. 2002 연동축제	189
63. 2003 여호와를 찬양하라	190

#### 교회창립 110주년 기념 / 191

64. 연동복지문화관 신축	192
65. 연동동산 '백합의 뜰'	193
66. 연동110 비전 선포식	194
67. 전교인체육대회	195
68. 바자회와 나눔의 쌀	196
69. 파이프 오르간 봉헌	197
70. 기념음악회	198
71. 신약 성경쓰기	199
72. 기념예배와 기타 행사	200
73. 문화축제	202
74. "110주년 잘가거라"	203

#### 부 록

자세히 새로 쓴 교회연혁	204
---------------	-----